『훈민정음』의 우리말 음절 짜임새와 초성·중성·종성의 자질 체계

임용기(전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훈민정음은 세종이 1443년에 창제하여, 1446년 9월에 반포한 소리글자[表音文字]이다. 이것은 당시 우리말의 음절 짜임새[音節構造]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만든, 표음성(表音性)이 아주 뛰어난 글자이다. 따라서 이것은 당시의 우리말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시의 조선 한자음(朝鮮漢字音)을 교정(矯正)한 『동국정운(東國正韻)』 한자음과 글자의 꼴을 일부 바꾸거나, 중국말의 음절 짜임새에 맞는 표기법(表記法)을 따로 마련함으로써, 중국 한자음까지 적을 수 있는 글자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훈민정음 창제 후에 펴낸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1447), 『석보상절(釋譜詳節)』(1447),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1447), 『동국정운(東國正韻)』(1448),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1455) 따위의 문헌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훈민정음을 창제한 근본 뜻은 물론 당시의 우리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한 글자를 만드는 데 있었다. 『훈민정음』(1446)의 어제 서(御製序)와 정인지 서(鄭麟趾序)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1)]

---

1)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故愚民。有所欲言而終不得伸其情者。多矣。予。爲此憫然。新制二十八字。欲使人人易習。便於日用耳矣。"(『訓民正音』 御製 序)
"天地自然之聲·則必有天地自然之文。所以古人因聲制字·以通萬物之情·以載三才之道·而後世不能易也。然四方風土區別·聲氣亦隨而異焉。盖外國之語·有其聲而無其字。假中國之字以通其用·是猶枘鑿之鉏鋙也·豈能達而無礙乎。要皆各隨所處而安·不可强之使同也。吾東方禮樂文章·侔擬華夏。但方言俚語·不與之同。學書者患其旨趣之難曉·治獄者病其曲折之難通。昔新羅薛聰·始作吏頭·官府民間·至今行之。然皆假字而用·或澁或窒。非但鄙陋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 누구나 이 글자를 가지고 글자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집현전 학자들에게 이 글자를 만든 원리와 방법은 물론, 그것을 부려 쓰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풀이한 책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것이 『훈민정음』 해례본(解例本)이다. 여기에는 제자(制字)의 원리와 방법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한, 당시 우리말의 음절 짜임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한, 초성(初聲), 중성(中聲), 종성(終聲)의 음절 안에서의 기능(機能),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同質性), 초성, 중성, 종성 및 사성(四聲)의 분석 방법,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資質)까지 자세하게 기술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어떤 말[言語]을 적기[表記] 위하여, 소리글자를 만들 경우, 그것이 음절글자[音節文字]이든 음운글자[音韻文字]이든, 먼저 그 말의 음절 짜임새와 음절을 구성하고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을 분석하고, 그 체계를 세울 수 있는 이론과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데 당시의 음운 이론(音韻理論)은 송 대(宋代)에 발달한 중국 성운학(聲韻學)이 유일하였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지만, 이것은 중국말 소리에 바탕을 둔 것이어서, 우리말 소리를 분석하는 데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말 소리의 분석에 맞는 새로운 음운 이론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은 이런 바탕 위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 글에서는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우리말 음절 짜임새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의 음절 안에서의 기능,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 초성, 중성, 종성 및 사성(四聲)의 분석 방법,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資質) 체계 등을 살펴보려고 한다.

無稽而已·至於言語之間·則不能達其萬一焉。癸亥冬。我殿下創制正音二十八字·略揭例義以示之·名曰訓民正音。”(『訓民正音』 鄭麟趾 序)

2.『훈민정음』의 우리말 음절 짜임새에 대한 새로운 이해

2.1. 중국의 성운학과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

중국의 전통적인 성운학(聲韻學)은 편운학(編韻學)과 등운학(等韻學)으로 나누어진다. 편운학은 작시(作詩)에 필요한 운서(韻書)를 편찬하기 위한 것이고, 등운학은 심음(審音)을 위한 등운도(等韻圖)를 작성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성운학이 한 학문으로 체계화된 것은 송 대(宋代)의 일이다. 편운학에서는 한자(漢字)의 음(音)을 성(聲)과 운(韻)으로 나누고, 운(韻)은 다시 성조(聲調)의 차이에 따라, 평성(平聲), 상성(上聲), 거성(去聲), 입성(入聲) 등의 사성(四聲)으로 나누는데, 이것은 운서(韻書) 편찬의 근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자음(漢字音)을 표기하는 데도 바탕이 되었다. 중국의 전통적인 운서인『절운(切韻)』,『광운(廣韻)』,『집운(集韻)』,『예부운락(禮部韻略)』등의 편찬은 물론, 중국의 전통적인 한자음 표기 방법인 반절법(反切法), 주음부호(注音符號), 병음방안(拼音方案) 등도 모두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

등운학에서는 편운학에서 구분한 성(聲)과 운(韻)을 다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하였는데, 성(聲)은 오음(五音) 또는 칠음(七音)과 청탁(淸濁)에 따라 분류하고, 운(韻)은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 등의 세 부분으로 분석하였는데, 성조(聲調)는 운(韻)에 얹히는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운(韻) 가운데 운두와 운복은 개합(開合)과 등(等)의 차이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는데, 개합의 차이에 따라서는 개구(開口)와 합구(合口)로 나누고, 등(等)의 차이에 따라서는 1등, 2등, 3등, 4등 따위로 나누었다. 그리고 운미는 음성운미(陰聲韻尾,「Ø, j, w」)와 양성운미(陽聲韻尾,「m, n, ŋ」)로 나누었는데, 양성운미에는 입성운미(入聲韻尾,「p, t, k」)를 포함시켰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한자의 음(音)은 완전히 분석이 되고, 따라서 그 음(音)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뜻글자[表意文字]인 한자(漢字)가 가진 근본적인 문제, 곧 표음성의 약점을 극복하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심음(審音)을 위한 학문은 이 때문에 필요한 것이다. 이것은 중국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인식해 온 음절 짜임새에 바탕을 둔 것인데, 이와 같은 한자음의 분석 태도는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의 음절 짜임새를 그렇게 분석하지 않았다. 그들은 먼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의 음절 짜임새를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분석하고, 그 각각의 음절 안에서의 기능의 차이는 물론, 그것들을 구성하고 있는 음운자질까지 밝혔다. 예를 들면, 초성의 '여(厲)'와 '응(凝)', 중성의 '설축(舌縮)'·'설소축(舌小縮)'·'설불축(舌不縮)'과 '구축(口蹙)'·'구장(口張)', 종성의 '완급(緩急)' 따위가 그것이다. 또 그들은 우리말의 성조(聲調)도 분석하였는데, 각 음절은 평성, 상성, 거성, 입성 등 사성(四聲)으로 나누어지지만, 중국말과는 달리, 이것은 음절 전체에 얹힌다. 이와 같이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절 분석 방법은 중국의 성운학과는 분명히 다른데, 그 까닭은 근본적으로 우리말과 중국말의 음절 짜임새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한다.

흔히 음절의 짜임새를 성(聲)과 운(韻)의 두 요소로 분석하는 중국의 음절 분석 방법을 이분법(二分法)이라 하고, 음절의 짜임새를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분석하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절 분석 방법을 삼분법(三分法)[2]이라고 한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이것을 가지고, 당시의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 그리고 중국의 한자음까지 분석하고, 또 그것을 표기할 수 있는 글자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다. 따라서 훈민정음에는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 그리고 중국 한자음의 음절 짜임새를 분석한 결과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은 서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1) 천지(天地)의 도(道)는 오직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들은 모두 이 이치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사람의 말소리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지만, 여태껏 사람들이 그것을 살피지 않았을 따름이다. 이제 이 훈민정음을 만든 것도, 처음부터 온갖

2) 삼분법에 대해서는 유창균(1977, 1984), 권재선(1987), 강창석,(1992), 임용기(1991, 1992) 등을 참고할 것.

지혜를 다 짜내거나, 애써서 찾은 것이 아니고, 말소리가 가지고 있는 이치를 다 밝혔을 뿐이다. 이치는 둘이 아니니, 어찌 천지귀신과 더불어 그 작용을 한 가지로 하지 않겠는가[3)]

곧 사람의 말소리[聲音]에도 근본 원리가 있는데, 훈민정음은 이 원리를 밝혀,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말소리의 원리는 천지 만물(天地萬物)을 지배하는 도(道)인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말[言語]과 글자[文字]와의 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2.2. 우리말 음절(音節) 짜임새와 초성(初聲)·중성(中聲)·종성(終聲)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절 짜임새에 대한 이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훈민정음』 제자해의 뒷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곧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의 음절의 짜임새에 대한 이해,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同質性), 그리고 초성, 중성, 종성의 한 음절 안에서의 기능의 차이 등에 관한 것들이 그것이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의 음절 짜임새는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2)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초성을 중성에 맞대어 말하면, 음양(陰陽)은 하늘의 도(道)이고, 강유(剛柔)는 땅의 도(道)이다. 중성이란 하나가 심(深)이면 하나는 천(淺)이고, 하나가 합(闔)이면 하나는 벽(闢)이니, 이는 음양이 나뉘고, 오행(五行)의 기운이 갖추어진 것이니, 하늘의 작용이다. 초성은 어떤 것은 허(虛)하고, 어떤 것은 실(實)하며, 어떤 것은 날리고(颺), 어떤 것은 걸리며(滯), 어떤 것은 무겁거나(重), 가벼우니(輕), 이는 강유(剛柔)가 드러나고, 오행(五行)의 바

3) "天地之道·一陰陽五行而已。坤復之間爲太極·而動靜之後爲陰陽。凡有生類在天地之間者·捨陰陽而何之。故人之聲音·皆有陰陽之理·顧人不察耳。今正音之作·初非智營而力索·但因其聲音而極其理而已。理旣不二·則何得不與天地鬼神同其用也。"(『訓民正音』 制字解)

탕(質)이 이루어진 것이니, 땅의 공(功)이다. 중성이 심천(深淺)과 합벽(闔闢)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으로 뒤에서 화답(和答)하여, 처음(첫소리)도 되고, 끝(끝소리)도 되니, 또한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다.[4)]

곧 음양(陰陽)으로 대립하는, 심천(深淺)과 합벽(闔闢)의 자질(資質)로 이루어진 중성(中聲)이 앞에서 부르면, 강유(剛柔)로 대립하는,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의 자질(資質)로 이루어진 초성(初聲)이 뒤에서 화답(和答)하여, 한 음절을 이루는데, 중성과 대립하는 초성은 음절의 첫소리[初聲]도 되고, 끝소리[終聲]도 된다는 것이다[5)]. 다시 말하면, 음절은 중성[홀소리, vowel]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에 초성[닿소리, consonant]가 와서, 한 음절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우리말의 음절 짜임새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의 음절 짜임새를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한 뒤에, 이것을 다시 성운학의 성(聲)과 운(韻)에 대응시켰는데, 그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곧 성(聲)은 초성(初聲)에 대응한다. 왜냐하면, 성(聲)과 초성(初聲)은 중국말이나 우리말에서, 음절 안에서의 기능이 같기 때문이다. 그러나 운(韻)과 중(中)·종성(終聲)의 관계는 그렇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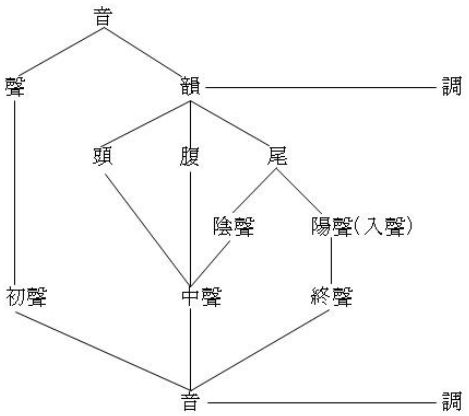
---

4) "以初聲對中聲而言之。陰陽·天道也。剛柔·地道也。中聲者·一深一淺一闔一闢·是則陰陽分而五行之氣具焉·天之用也。初聲者·或虛或實或颺或滯或重若輕·是則剛柔著而五行之質成焉·地之功也。中聲以深淺闔闢唱之於前·初聲以五音淸濁和之於後·而爲初亦爲終。亦可見萬物初生於地·復歸於地也。"(『訓民正音』 制字解)

5) 『훈민정음』 제자해(制字解)에서는 '초성(初聲)'이란 말을 어떤 경우에는 오늘날의 닿소리(子音, consonant)와 같은 개념으로 쓰고, 어떤 경우에는 음절의 첫소리(initial)와 같은 개념으로 쓰기도 한다. 제자해의 "以初聲對中聲而言之"라는 부분과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라는 부분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以初聲對中聲而言之"에서의 초성은 중성, 곧 홀소리(母音, vowel)와 대립하는 닿소리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이고,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에서의 초성은 중성, 종성과 대립하는 음절의 첫소리라는 뜻으로 쓰인 경우이다. 그러므로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이미 닿소리와 홀소리, 그리고 음절의 첫소리, 가운뎃소리, 끝소리를 서로 구분하고 있었다. 이것은 뒤에서 언급할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종성을 적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초성을 적는 글자를 다시 쓴다는 것이다. 이른바 "終聲復用初聲"이란 규정은 그렇게 생겨난 것이다.

이것들은 바로 대응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두 나라 말의 음절 짜임새에 대한 인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운(韻)과 중·종성의 대응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곧 운(韻)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운두(韻頭), 운복(韻腹), 운미(韻尾)이다. 운미는 다시 양성운미(陽聲韻尾)와 음성운미(陰聲韻尾)로 나누어지는데, 양성운미는 입성운미(入聲韻尾)를 포함한다. 그런데 이 양성운미가 우리말의 종성에 대응한다. 그러나 중성의 경우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곧 운두, 운복, 음성운미는, 운복을 중심으로 하여, 하나의 단위를 이루게 되는데, 이것이 중성에 대응한다. 따라서 중성은 운복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운두와 음성운미가 결합하여 한 중성을 이룰 수도 있다. 중국말의 성(聲)·운(韻)과 우리말의 초성·중성·종성의 대응 관계를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6]

(3)



2.3.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의 음절이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운데 초성과 종성은 음운론적으로 같은 종류에 속한다는 사실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2)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6) 성운학의 성(聲)·운(韻)과 우리말의 초성·중성·종성의 대응 관계에 관해서는 임용기(1992, 2008) 등을 참고할 것.

(2)에서 중성이 심천(深淺)과 합벽(闔闢)으로 앞에서 부르면, 초성이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으로 뒤에서 화답하여, 음절의 첫소리(初聲)도 되고, 끝소리(終聲)도 된다는 설명을 통하여,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초·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同質性)을 확인할 수 있다. 초성을 땅[地]에 견주고, 중성을 하늘[天]에 견준 뒤에, 만물이 땅에서 나서, 다시 땅으로 돌아감을 볼 수 있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이다.

(2)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훈민정음』 제자해의 앞부분에 있는 초성과 중성의 설명에 바탕을 두고 있다, 곧 초성의 경우, 후음(喉音)은 빈 것 같지만 통하고, 아음(牙音)은 후음(喉音)과 비슷하지만 실(實)하고, 설음(舌音)은 구르고 날리며, 치음(齒音)은 부스러지고 막히며, 순음(脣音)은 머금으면서도 넓은 소리인데, 이것은 다시 가벼운 소리[脣輕音]와 무거운 소리[脣重音]로 나누어진다. 중성의 경우, 「·」는 혀가 오그라지는데, 소리는 깊으며, 「ㅡ」는 혀가 조금 오그라지는데, 소리는 깊지도 얕지도 않으며, 「ㅣ」는 혀가 오그라지지 않는데, 소리는 얕다. 그 밖의 중성들은 「ㅗ, ㅜ, ㅛ, ㅠ」처럼 입이 오무라지거나[口蹙], 아니면 「ㅏ, ㅓ, ㅑ, ㅕ」처럼 입이 벌어지는[口張] 소리들인데, 입이 오무라지는 소리는 합(闔)이고, 입이 벌어지는 소리는 벽(闢)이다.[7]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에 대해서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다음 부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4) 종성의 초성을 다시 씀은 그것이 동(動)해서 양(陽)인 것도 건(乾)이고, 정(靜)해서 음(陰)인 것도 건(乾)이니, 건(乾)이 비록 음(陰)과 양(陽)으로 나뉘어도, 주재(主宰)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 태초의 한 기운이 두루 흘러 다함이 없고, 사시(四時)의 운행(運行)이 순환해서 끝이 없는 까닭에, 정(貞)이 다시 원(元)이 되고, 겨울이 다시 봄이 되는 것이니, 초성이 다시 끝이 되고, 종성이 다시 처음이 되는 것도 다 이러한 뜻이다.[8]

---

7) "喉...聲虛而通...牙...聲似喉而實...舌...聲轉而颺...齒...聲屑而滯...脣...聲含而廣...唯喉音次淸爲全濁者·盖以ㆆ聲深不爲之凝·ㅎ比ㆆ聲淺·故凝而爲全濁也。ㅇ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 · 舌縮而聲深...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ㅣ舌不縮而聲淺...此下八聲·一闔一闢。ㅗ與同而口蹙...ㅏ與同而口張...ㅜ與一同而口蹙...ㅓ與一同而口張"(『訓民正音』 制字解)

(4)에서 “동(動)해서 양(陽)인 것도 건(乾)이고, 정(靜)해서 음(陰)인 것도 건(乾)이니, 건(乾)이 비록 음과 양으로 나뉘어도, 주재하지 않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한 것은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종성을 적는 글자를 따로 만들지 않고, 이미 만들어 놓은 초성 글자를 다시 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훈민정음』 본문에서 “종성부용초성(終聲復用初聲)”이라 한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실에 근거를 두고 있다.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적이 있다.[9)]

2.4. 초성·중성·종성의 음절 안에서의 기능

음절은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이루어지는데, 이 세 소리는 음절 안에서의 기능이 각기 다르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초성, 중성, 종성의 음절 안에서의 기능의 차이는 『훈민정음』 제자해의 다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 (5) 초성, 중성, 종성이 합해서 이룬 글자를 가지고 말할 것 같으면, 또한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陰)과 양(陽)이 사귀어 변하는 뜻이 있다. 동(動)이란 하늘이요, 정(靜)이란 땅이며, 동(動)과 정(靜)을 겸한 것은 사람이다. 대개 오행(五行)이 하늘에 있어서는 신(神)의 운행(運行)이요, 땅에 있어서는 바탕(質)의 이룸이다. 사람에 있어서는 인(仁), 예(禮), 신(信), 의(義), 지(智)가 신(神)의 운행(運行)이요, 간장(肝臟), 심장(心藏), 비장(脾臟), 폐장(肺臟), 신장(腎臟)이 바탕(質)의 이룸이다. 초성에는 발동(發動)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요, 종성에는 그치고 정하는 뜻(止定)이 있으니, 땅의 일이다. 중성은 초성의 남을 이어받고, 종성의 이룸을 이어 주니, 사람의 일이다. 대개 자운(字韻)의 중심은 중성에 있는데,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 음을 이루니, 이것은 또한 하늘과 땅이 만물을 생성해도, 그 재성(財

8) “終聲之復用初聲者以其動而陽者乾也·靜而陰者亦乾也·乾實分陰陽而無不君宰也。一元之氣·周流不窮·四時之運·循環無端·故貞而復元·冬而復春。初聲之復爲終·終聲之復爲初·亦此義也。”(『訓民正音』 制字解)

9)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에 대해서는는 이기문(1963:24-25), 이병근(1988:63) 등을 참고할 것.

成)과 보상(輔相)은 반드시 사람에게 힘입는 것과 같다.[10]

(5)에서 밝히고 있는 초성, 중성, 종성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곧 여기에는 동(動)과 정(靜)이 서로 뿌리가 되고, 음(陰)과 양(陽)이 서로 사귀고 변하는 뜻이 있다. 이를테면, 동(動)은 하늘[天]이고, 정(靜)은 땅[地]이며, 동(動)과 정(靜)을 아우르는 것은 사람[人]인데, 초성은 발동(發動)의 뜻이 있으니, 하늘의 일이고, 종성은 그치고 정하는[止定] 뜻이 있으니 땅의 일이며, 중성은 초성의 남을 잇고, 종성의 이루어짐을 이으니 사람의 일이다. 따라서 음절은 중성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앞과 뒤에 초성과 종성이 이어나서, 한 음절을 이루는데, 초성은 음절의 첫소리이기 때문에 '발동(發動)'의 뜻이 있고, 종성은 음절의 끝소리이기 때문에 '지정(止定)'의 뜻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성은 음절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초성과 종성을 거느려, 한 음절을 이룬다는 것이다.

3. 『훈민정음』의 초성・중성・종성 및 사성(四聲)의 분석

3.1. 초성의 분석

『훈민정음』 초성해(初聲解)에서는 초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6) 정음(正音)의 초성은 곧 운서(韻書)의 자모(字母)인데, 말소리[聲音]가 이로 말미암아 생기므로, 모(母)라고 한다. 아음(牙音) 군(君) 자(字)의 초성은 「ㄱ」 인데, 「ㄱ」 가 「ㄷ」 과 더불어, 「군」 이 되는 것과 같다.[11]

---

10) "以初中終合成之字言之·亦有動靜互根陰陽交變之義焉。動者·天也。靜者·地也。兼乎動靜者·人也。盖五行在天則神之運也·在地則質之成也·在人則仁禮信義智神之運也·肝心脾肺腎質之成也。初聲有發動之義·天之事也。終聲有止定之義·地之事也。中聲承初之生·接終之成·人之事也。盖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亦猶天地生成萬物·而其財成輔相則必賴乎人也。"(『訓民正音』 制字解)

11) "正音初聲·卽韻書之字母也。聲音由此而生·故曰母。如牙音君字初聲是ㄱ·ㄱ與ㄷ而爲군。"(『訓民正音』 初聲解)

곧 훈민정음의 초성은 중국 운서(韻書)의 자모(字母)와 같은 것인데, 말소리가 이로 말미암아 생기므로 모(母)라고 한다는 것이다. 곧 「君」이라는 글자의 음(音)을 성(聲)과 운(韻)으로 분석하면, 「ㄱ」(k)와 「ㄾ」(un)이 되는데, 이 「ㄱ」와 「ㄾ」이 합하여, 「군」(kun)이라는 음(音)을 이룬다는 것이다. 따라서 아음(牙音)의 전청(全淸)에 속하는 「君」자(字)의 성(聲)은 「見」자모(字母)로 나타내는데, 이 자모가 훈민정음의 초성 「ㄱ」과 같다는 것이다.[12] 그 밖에 「快」자(字)의 초성 「ㅋ」, 「虯」자(字)의 초성 「ㄲ」, 「業」자(字)의 초성 「ㆁ」 등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이것들은 모두 아음(牙音)에 속하는데, 그 밖에 설음(舌音)의 「ㄷ(斗), ㅌ(呑), ㄸ(覃), ㄴ(那)」, 순음(脣音)의 「ㅂ(彆), ㅍ(漂), ㅃ(步), ㅁ(彌)」, 치음(齒音)의 「ㅈ(卽), ㅊ(侵), ㅉ(慈), ㅅ(戌), ㅆ(邪)」, 후음(喉音)의 「ㆆ(挹), ㅎ(虛), ㆅ(洪), ㅇ(欲)」, 반설음(半舌音)의 「ㄹ(閭)」, 반치음(半齒音)의 「ㅿ(穰)」 등도 모두 이와 같다.[13]

---

12) 성운학(聲韻學)에서는 전통적으로 한자(漢字)의 음(音)을 성(聲)과 운(韻)으로 나눈 뒤에, 성(聲)은 오음(五音)과 청탁(淸濁), 운(韻)은 운복(韻腹)과 운미(韻尾), 그리고 사성(四聲) 등이 같은 것 끼리, 곧 쌍성(雙聲)과 첩운(疊韻)으로 분류하고, 그 각각을 대표하는 성(聲)과 운(韻)를 성모(聲母)와 운모(韻母)라고 하고, 이것을 한 글자로 나타내었는데, 성모(聲母)를 대표하는 글자를 '자모(字母)'라고 하고, 운(韻)을 대표하는 글자를 '운목(韻目)'이라고 한다. 『광운』의 36자모(字母)과 206운목(韻目)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아음(牙音)의 자모(字母)에는 「見(全淸), 溪(次淸), 群(全濁), 疑(不淸不濁)」 따위가 있고, '문운(文韻)' 운목(韻目)에는 「文(平聲), 吻(上聲), 問(去聲), 物(入聲)」 따위가 있다.

『훈민정음』 초성해에서는 「君」자(字)의 음(音)을 [k]와 [un]으로 분석한 뒤에, 이것을 각각 「ㄱ」과 「ㄾ」으로 표기하였는데, [k]와 [un]은 「君」자(字)의 성(聲)과 운(韻)이 된다. 이것은 성운학의 음절 분석 방법에 따라 한자음을 분석한 것인데, 성운학에서는, 이 경우, 「君」자(字)의 성모(聲母) [k]는 「見」자모(字母)로 나타내고, 「君」자(字)의 운모(韻母) [un]은 「文」운목(韻目)으로 나타낸다. 따라서 「君」자(字)의 초성을 적은 「ㄱ」은 「見」자모(字母)와 같고, 「君」자(字)의 중·종성을 합자(合字)한 「ㄾ」은 「文」운목(韻目)과 같다.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초성의 개념을 이와 같이 파악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성운학의 한자음의 분석 및 그 표기 방법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13) "快字初聲是ㅋ·ㅋ與ᄒᆡ而爲쾌。虯字初聲是ㄲ·ㄲ與ㅠ而爲뀨。業字初聲是ㆁ·ㆁ與ㅂ而爲업之類。舌之斗呑覃那·脣之彆漂步彌·齒之卽侵慈戌邪·喉之挹虛洪欲·半舌半齒之閭穰·皆倣此。"(『訓民正音』 初聲解)

3.2. 중성의 분석

중성은 성운학에는 없는 개념이다. 이것은 음절의 짜임새를 초성, 중성, 종성의 세 요소로 분석하는 데서 비롯한 것인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이것을 음절의 구성 요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대개 자운(字韻)의 요점(要點)은 중성에 있는데, 초성과 종성이 합하여 음을 이룬다."[14]라고 한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훈민정음』 중성해(中聲解)에서는 중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7) 중성이라는 것은 자운(字韻)의 가운데 있는 소리인데, 초성과 종성을 합하여 한 음(音)을 이룬다. 「呑」 자(字)의 중성은 「ㆍ」 인데, 이 「ㆍ」가 초성 「ㅌ」와 종성 「ㄴ」 사이에 들어가서, 「툰」 이라는 음(音)이 되는 것과 같다.[15]

그 밖에 「卽」 자(字)의 중성 「ㅡ」 와 「侵」 자(字)의 중성 「ㅣ」 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등과 같은 중성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모두 이와 같다.[16]

3.3. 종성의 분석

종성 역시 성운학에는 없는 새로운 개념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성운학에서는 운(韻)을 성조(聲調)뿐만 아니라, 운미(韻尾)의 차이에 따라서도 분류해 왔기 때문에,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에게는 이것이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다.

---

14) "盖字韻之要·在於中聲·初終合而成音。"(『訓民正音』 制字解)
'자운(字韻)'이란 말은 '자음(字音)'과 그 뜻이 같다. 『훈민정음』 중성해에서 "中聲者,居字韻之中,合初終而成音"라고 한 부분과 종성해에서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라고 한 부분의 자운(字韻)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중성은 이 자운(字韻)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소리라는 것이다.

15) "中聲者·居字韻之中·合初終而成音。如呑字中聲是·居ㅌㄴ之間而爲툰。"(『訓民正音』 制字解)

16) "卽字中聲是ㅡ·ㅡ居ㅈㄱ之間而爲즉。侵字中聲是ㅣ·ㅣ居ㅊㅁ之間而爲침之類。洪覃君業欲穰戌彆皆倣此。"(『訓民正音』 中聲解)

운미 가운데 음성운미는 중성의 일부분을 이루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은 입성운미를 포함한 양성운미가 하나의 새로운 단위를 이루게 되는데, 그것이 종성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종성을 분류하는 기준을 따로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훈민정음』 종성해에서는 종성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8) 종성은 초성과 중성을 이어, 자운(字韻)을 이룬다. 마치 「卽」 자(字)의 종성은 「ㄱ」 인데, 이 「ㄱ」 가 「즈」 의 끝에 자리하여, 「즉」 이 된다. 「洪」 자(字)의 종성은 「ㆁ」 인데, 이 「ㆁ」 이 「홍」 의 끝에 자리하여, 「홍」 이 되는 따위와 같다. 설음, 순음, 치음, 후음도 모두 이와 같다. ..... (종성) 「ㄷ」 은 마치 「볃」 이 「彆」 이 되고, 「ㄴ」 은 마치 「군」 이 「君」 이 되고, 「ㅂ」 은 마치 「업」 이 「業」 이 되고, 「ㅁ」 은 마치 「땀」 이 「覃」 이 되고, 「ㅅ」 은 마치 우리말의 「ᄋᆞ옷」 이 「衣」 가 되고, 「ㄹ」 은 마치 우리말의 「ᄉᆞᆯ」 이 「絲」 따위가 되는 것과 같다.[17]

그리고 (8)에서는 우리말의 한자음 종성뿐만 아니라, 한자음에는 없는, 순우리말에만 있는 종성의 예를 들고 있는데, 「ᄋᆞ옷」 (衣)의 「ㅅ」 과 「ᄉᆞᆯ」 (絲)의 「ㄹ」 이 그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우리말의 종성에는 아음(牙音)의 「ㄱ, ㆁ」, 설음(舌音)의 「ㄷ, ㄴ」, 순음의 「ㅂ, ㅁ」, 그리고 치음(齒音) 「ㅅ」 과 반설음(半舌音)의 「ㄹ」 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여덟 가지가 이른바 우리말 음절의 끝소리에 나타나는 팔종성(八終聲)이다.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종성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9) 말소리[聲]는 느리고 급함[緩急]의 다름이 있다. 그러므로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은 입성의 촉급함과 같지 않다. 불청불탁(不淸不濁)의 글자는 그 소리가 세지[厲] 않으므로, 종성에 쓸 것 같으면, 평성, 상성, 거성에 맞고,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의 글자들은 그 소리가 세므로(厲), 종성에 쓸 것 같으면, 입성에 마땅하다. 따라서 「ㆁ, ㄴ, ㅁ, ㅇ, ㄹ, ㅿ」 의 6글자는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그 나머지는 모두 입성의 종성이 된다. 그

17) "終聲者·承初中而成字韻。如卽字終聲是ㄱ·ㄱ居ㅈ終而爲즉。洪字終聲是ㆁ·ㆁ居홍終而爲홍之類。
舌脣齒喉皆同。.....ㄷ如볃爲彆·ㄴ如군爲君·ㅂ如업爲業·ㅁ如땀爲覃·ㅅ如諺語·옷爲衣·ㄹ如諺語:실爲絲之類。(『訓民正音』 終聲解)

러나 「ㄱ, ㆁ, ㄷ, ㄴ, ㅂ, ㅁ, ㅅ, ㄹ」의 8글자로도 족히 쓸 수 있다.[18]

이 가운데 「ㆁ, ㄴ, ㅁ」은 한자음의 양성운미에, 「ㄱ, ㄷ, ㅂ」은 한자음의 입성운미에 쓰이는데, 「ㅅ, ㄹ」은 우리말의 종성에만 쓰인다. 그러나 「ㆁ, ㄴ, ㅁ, ㄱ, ㄷ, ㅂ」 종성은 순우리말에도 그대로 쓰인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훈민정음을 창제하기 위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漢字音)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초성이나 중성, 그리고 사성(四聲)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4. 사성(四聲)의 분석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성조(聲調)를 종성의 완급(緩急)의 차이에 따라, 먼저 평성·상성·거성과 입성으로 나누었다. 곧 '느린 소리'인 평성, 상성, 거성에 대하여, 입성을 '샐리 긋듣는 소리(빨리 끝 닫는 소리)'라고 하고, 다시 느린 소리 가운데, 평성은 'ᄆᆞᆺ노가ᄫᅳᆫ 소리(가장 낮은 소리)', 상성은 '처ᅀᅥ미 ᄂᆞᆺ갑고 내종(乃終)이 노ᄑᆞᆫ 소리(처음이 낮고 나중이 높은 소리)', 그리고 거성은 'ᄆᆞᆺ노ᄑᆞᆫ 소리(가장 높은 소리)'라고 하였다.[19]

그리고 중국말과 마찬가지로 우리말에도 사성(四聲)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중국말의 사성(四聲)과 어떻게 다른지도 분명히 이해하고 있었다. 곧 중국말의 입성은 모두 거성과 비슷하지만, 우

---

18)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淸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訓民正音』終聲解)

19) "凡字必合而成音。左加一點則去聲·二則上聲·無則平聲。入聲加點同而促急。"(『訓民正音』本文)
"左加一點ᄒᆞ면 則去聲이오(左ᄂᆞᆫ 왼녀기라 加ᄂᆞᆫ 더을 씨라 一ᄋᆞᆫ ᄒᆞ나히라 去聲은 ᄆᆞᆺ노ᄑᆞᆫ 소리라) 왼녀긔 ᄒᆞᆫ 點을 더으면 ᄆᆞᆺ노ᄑᆞᆫ 소리오, 二則上聲이오(二ᄂᆞᆫ 둘히라 上聲은 처ᅀᅥ미 ᄂᆞᆺ갑고 乃終이 노ᄑᆞᆫ 소리라) 點이 둘히면 上聲이오, 無則平聲이오(無ᄂᆞᆫ 업슬 씨라 平聲은 ᄆᆞᆺ노가ᄫᅳᆫ 소리라) 點이 업스면 平聲이오, 入聲은 加點이 同而促急ᄒᆞ니라(入聲은 샐리 긋듣ᄂᆞᆫ 소리라 促急은 ᄲᆞᆯ 씨라) 入聲은 點 더우믄 ᄒᆞᆫ가지로ᄃᆡ ᄲᆞᄅᆞ니라(『訓民正音』諺解本)

리말의 입성은 어떤 것은 평성과 비슷하고, 어떤 것은 상성과 비슷하며, 어떤 것은 거성과 비슷하여, 일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훈민정음』 합자해(合字解)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10) 우리말[諺語]의 평(平)·상(上)·거(去)·입(入)은 마치 「활」 이라 적으면, 「弓」 이 되는데, 그 성(聲)은 평성이고, 「:돌」 이라 적으면, 「石」 이 되는데, 그 성(聲)은 상성이고, 「·갈」 이라 적으면, 「刀」 가 되는데, 그 성(聲)은 거성이고, 「·붇」 이라 적으면, 「筆」 이 되는데, 그 성(聲)은 입성이 되는 따위와 같다. 무릇 글자의 왼쪽에 한 점(點)을 더하면 거성이 되고, 두 점이면 상성이 되고, 점이 없으면 평성이 된다. 그러나 중국말의 입성은 거성과 비슷하지만, 우리말의 입성은 정해진 것이 없다. 따라서 어떤 것은 평성과 비슷하니, 마치 「긷」 이 「柱」 가 되고, 「녑」 이 「脇」 이 되며, 어떤 것은 상성과 비슷하니, 마치 「:낟」 이 「穀」 이 되고, 「:깁」 이 「繒」 이 되며, 어떤 것은 거성과 비슷하니, 마치 「·몯」 이 「釘」 이 되고, 「·입」 이 「口」 가 되는 따위와 같다. 그것들의 점을 더하는 것은 평·상·거성이 같다."[20]

4. 『훈민정음』의 초성·중성·종성의 자질 체계

4.1. 초성의 자질 체계

성운학에서는 중국말의 성(聲)을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을 기준으로 하여, 하위(下位)로 분류하는데, 『광운』의 36자모(字母), 『고금운회거요(古今韻會擧要)』의 35자모, 『홍무정운(洪武正韻)』의 31자모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성(聲)을 분류하는 기준인 오음과 청탁은 구체적인 성(聲) 하나하나를 구성하는 음운자질(音韻資質)이 된다. 예를 들면, 아음(牙音)의 전청(全淸)인 「見」 자모(字母)가 나타내는 성(聲) [k]는 [牙音, 全淸]이란 자질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20) "諺語平上去入,如활爲弓而其聲平,:돌爲石而其聲上,·갈爲刀而其聲去,·붇爲筆而其聲入之類.凡字之左,加一點爲去聲,二點爲上聲,無點爲平聲.而文之入聲,與去聲相似.諺之入聲無定,或似平聲,如긷爲柱,녑爲脅.或似上聲,如:낟爲穀,:깁爲繒.或似去聲,如·몯爲釘,·입爲口之類.其加點則與平上去同.平聲安而和,春也,萬物舒泰.上聲和而擧,夏也,萬物漸盛.去聲擧而壯,秋也,萬物成熟.入聲促而塞,冬也,萬物閉藏."(『訓民正音』 合字解)

이 아래에서는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들을 차례로 살펴보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여, 그 각각의 자질 체계를 밝힐 것이다.

성운학의 아(牙), 설(舌), 순(脣), 치(齒), 후(喉)의 오음(五音)은 각 성(聲)을 그것이 조음(調音)되는 위치에 따라 분류한 것인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그것을 다시 청취 인상 등의 차이에 따라 허(虛)·실(實), 양(颺)·체(滯), 경(輕)·중(重) 따위로 분류하고, 허(虛)는 후(喉), 실(實)은 아(牙), 양(颺)은 설(舌), 체(滯)는 치(齒), 경(輕)은 순경(脣輕), 중(重)은 순중(脣重)에 각각 대응시켰다. 또 성운학의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 등의 청탁(淸濁)은 청취 인상에 따라 오음을 분류한 것인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이것을 여(厲), 응(凝), 심천(深淺), 경중(輕重) 따위의 자질에 따라 다시 분류하였다. 불청불탁(不淸不濁)은 최불여(最不厲)한 소리, 전청(全淸)은 그보다 여(厲)한 소리, 차청(次淸)은 그보다 더 여(厲)한 소리라고 하였다. 그리고 전탁(全濁)은 전청(全淸)의 소리가 응기어[凝] 나는 소리라고 하였다. 이 자질들은 초성 글자를 만드는데, 그대로 반영된다.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여(厲)의 자질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1) 아음(牙音)의 「ㅋ」 는 「ㄱ」 에 비해서 소리가 조금 세기[厲] 때문에 획(畫)을 더하는데, 「ㄴ」 과 「ㄷ」, 「ㄷ」 과 「ㅌ」, 「ㅁ」 과 「ㅂ」, 「ㅂ」 과 「ㅍ」, 「ㅅ」 과 「ㅈ」, 「ㅈ」 과 「ㅊ」, 「ㅇ」 와 「ㆆ」, 「ㆆ」 과 「ㅎ」 들도 그 소리 때문에 획(畫)을 더한 뜻은 모두 같다.[21]

그리고 응(凝), 심천(深淺), 경중(輕重) 따위의 자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2) 말소리를 청탁에 따라 분류하면,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불청불탁(不淸不濁) 따위의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ㄱ,ㄷ,ㅂ,ㅈ,ㅅ,ㆆ」 는 전청이고, 「ㅋ,ㅌ,ㅍ,ㅊ,ㅎ」 는 차청이고, 「ㄲ,ㄸ,ㅃ,ㅉ,ㅆ,ㆅ」 는 전탁이고, 「ㆁ,ㄴ,

21) "ㅋ比ㄱ·聲出稍厲·故加畫。ㄴ而ㄷ·ㄷ而ㅌ·ㅁ而ㅂ·ㅂ而ㅍ·ㅅ而ㅈ·ㅈ而ㅊ·ㅇ而ㆆ·ㆆ而ㅎ·其因聲加畫之義皆同·而唯ㆁ爲異。半舌音ㄹ·半齒音ㅿ·亦象舌齒之形而異其體·無加畫之義焉。"(『訓民正音』 制字解)

ㅁ,ㅇ,ㄹ,ㅿ」는 불청불탁이다. 그런데 전청의 글자를 병서하면 전탁 글자가 되는데, 그 까닭은 전청의 소리가 엉기면[凝] 전탁의 소리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후음은 차청이 전탁이 되는데, 그 까닭은 「ㆆ」는 소리가 깊어 엉기게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ㅎ」는 「ㆆ」에 비하여 그 소리가 얕기 때문에, 엉겨서 전탁이 된다. 그리고 「ㅇ」를 순음 아래 이어 쓰면, 순경음이 되는데, 그 까닭은 경음(輕音)은 입술이 잠깐 합해져서 나오는데, 후성(喉聲)이 많기 때문이다.[22]

그리고 소릿길(vocal tract)의 자질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3) 오직 아음(牙音)의 「ㆁ」은 비록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아, 소릿기운[聲氣]이 코로 나오지만, 그 소리가 「ㅇ」와 비슷하여, 운서(韻書)에서는 의모(疑母, 「ㆁ」)와 유모(喩母, 「ㅇ」)를 서로 혼용하는 경우가 많다.[23]

소릿길은 입길(聲氣出口, oral tract)과 콧길(聲氣出鼻, nasal tract)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11, 12, 13)에 따르면,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초성을 오음(五音)과 청탁(淸濁)에 따라 분류한 뒤,[24] 청탁(淸濁)의 다름을 다시 세기[厲]의 정도의 차이, 엉김[凝]의 있고 없음, 입길(聲氣出口, oral tract)과 콧길(聲氣出鼻,

---

22) "又聲音淸濁而言之。ㄱㄷㅂㅈㅅㆆ·爲全淸。ㅋㅌㅍㅊㅎ·爲次淸。ㄲㄸㅃㅉㅆㆅ·爲全濁。ㆁㄴㅁㅇㄹㅿ·爲不淸不濁。ㄴㅁㅇ·其聲冣不厲·故次序雖在於後·而象形制字則爲之始。ㅅㅈ雖皆爲全淸·而ㅅ比ㅈ·聲不厲·故亦爲制字之始。唯牙之ㆁ·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今亦取象於喉·而不爲牙音制字之始。盖喉屬水而牙屬木·ㆁ雖在牙而與ㅇ相似·猶木之萌芽生於水而柔軟·尙多水氣也。ㄱ木之成質·ㅋ木之盛長·ㄲ木之老壯·故至此乃皆取象於牙也。全淸並書則爲全濁·以其全淸之聲凝則爲全濁也。唯喉音次淸爲全濁者·盖以ㆆ聲深不爲之凝·ㅎ比ㆆ聲淺·故凝而爲全濁也。ㅇ連書脣音之下·則爲脣輕音者·以輕音脣乍合而喉聲多也。"(『訓民正音』 制字解)

23) "唯牙之ㆁ·雖舌根閉喉聲氣出鼻·而其聲與ㅇ相似·故韻書疑與喩多相混用。"(『訓民正音』 制字解)

24) 『동국정운』 23자모(字母)의 체계는 아래와 같다.

	牙音	舌音	脣音	齒音	喉音	半舌音	半齒音
全淸	ㄱ	ㄷ	ㅂ	ㅅ,ㅈ	ㆆ		
次淸	ㅋ	ㅌ	ㅍ	ㅊ	ㅎ		
全濁	ㄲ	ㄸ	ㅃ	ㅆ,ㅉ	ㆅ		
不淸不濁	ㆁ	ㄴ	ㅁ		ㅇ	ㄹ	ㅿ

nasal tract)의 다름 따위로 다시 분류하였다. 그리고 후음(喉音)은 심천(深淺), 순음(脣音)은 경중(輕重)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그 체계를 세웠는데,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분류한 초성의 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4) 초성의 자질

「ㆁ」(牙音, 不淸不濁):[舌根閉喉[25], 最不厲, 聲氣出鼻]
「ㄱ」(牙音, 全淸):[舌根閉喉, 不厲, 聲氣出口]
「ㅋ」(牙音, 次淸):[舌根閉喉, 厲, 聲氣出口]
「ㄲ」(牙音, 全濁):[舌根閉喉, 凝, 聲氣出口]
「ㄴ」(舌音, 不淸不濁):[舌附上腭, 最不厲, 聲氣出鼻]
「ㄷ」(舌音, 全淸):[舌附上腭, 不厲, 聲氣出口]
「ㅌ」(舌音, 次淸):[舌附上腭, 厲, 聲氣出口]
「ㄸ」(舌音, 全濁):[舌附上腭, 凝, 聲氣出口]
「ㅁ」(脣重音, 不淸不濁):[口(重), 最不厲, 聲氣出鼻]
「ㅂ」(脣重音, 全淸):[口(重), 不厲, 聲氣出口]
「ㅍ」(脣重音, 次淸):[口(重), 厲, 聲氣出口]
「ㅃ」(脣重音, 全濁):[口(重), 凝, 聲氣出口]
「ㅱ」(脣輕音, 全淸):[口(輕), 不厲, 聲氣出口]
「ㅅ」(齒音, 全淸):[齒, *不厲, 聲氣出口]
「ㅈ」(齒音, 全淸):[齒, *不厲, 聲氣出口]
「ㅊ」(齒音, 次淸):[齒, 厲, 聲氣出口]
「ㅆ」(齒音, 全濁):[齒, 凝, 聲氣出口]
「ㅉ」(齒音, 全濁):[齒, 凝, 聲氣出口][26]

---

25) (14)의 '舌根閉喉', '舌附上腭', 'ㅁ(重)', 'ㅁ(輕)', '齒', '喉' 등은 오음(五音)의 조음위치(調音位置)를 구체적으로 밝힌 것인데, 『훈민정음』 제자해의 다음 부분에서 따온 것이다. "牙音ㄱ·象舌根閉喉之形。舌音ㄴ·象舌附上齶之形。脣音ㅁ·象口形。齒音ㅅ·象齒形。喉音ㅇ·象喉形。"

26) (14)에서 「ㅅ」와 「ㅈ」의 자질을 똑 같이 [齒, *不厲, 聲氣出口]라고 하고, 또 「ㅆ」와 「ㅉ」의 자질을 똑 같이 [齒, 凝, 聲氣出口]라고 한 것은 「ㅅ」와 「ㅈ」가 다 같이 전청(全淸)에 속하고, 또 「ㅆ」와 「ㅉ」가 다 같이 전탁(全濁)에 속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ㅅ」가 「ㅈ」보다 세지 않은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곧 "「ㅅ」와 「ㅈ」는 다 같이 전청(全淸)에 속하지만, 「ㅅ」가 「ㅈ」에 비해, 소리가 세지[厲] 않으므로, 제자(制字)의 처음으로 삼는다(ㅅㅈ雖皆爲全淸·而ㅅ比ㅈ·聲不厲·故亦爲制字之始。)"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ㅅ」와 「ㅈ」의 자질 표시에 문제가 생기는데, 「ㅆ」와 「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ㅅ」와 「ㅈ」, 「ㅆ」와 「ㅉ」의 자질 표시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 둔다.

「ㅇ」(喉音, 不淸不濁):[喉, 最不厲, 聲氣出口]
「ㆆ」(喉音, 全淸):[喉(深), 不厲, 聲氣出口
「ㅎ」(喉音, 次淸):[喉(淺), 厲, 聲氣出口]
「ㆅ」(喉音, 全濁):[喉(淺), 凝, 聲氣出口]
「ㄹ」(半舌音, 不淸不濁):[半舌, 最不厲, 聲氣出口]
「ㅿ」(半齒音, 不淸不濁):[半齒, 最不厲, 聲氣出口]

(14)를 바탕으로 하여, 초성의 자질 체계를 양분자질(兩分資質, binary feature)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초성의 자질 체계

	舌根閉喉				舌附上腭				脣				齒						喉				半舌	半齒
	ㄱ	ㅋ	ㄲ	ㆁ	ㄷ	ㅌ	ㄸ	ㄴ	ㅂ	ㅍ	ㅃ	ㅁ	ㅸ	ㅅ	ㅈ	ㅊ	ㅆ	ㅉ	ㆆ	ㅎ	ㆅ	ㅇ	ㄹ	ㅿ
聲氣出鼻	−	−	−	+	−	−	−	+	−	−	−	+	−	−	−	−	−	−	−	−	−	−	−	−
凝	−	−	+	−	−	−	+	−	−	−	+	−	−	−	−	−	+	+	−	−	+	−	−	−
厲	−	+	−	−	−	+	−	−	−	+	−	−	−	−	−	+	−	−	−	+	−	−	−	−
不厲	−	−	−	+	−	−	−	+	−	−	−	+	−	+	−	−	+	−	−	−	+	+	+	+
輕									−	−	−	−	+											
淺																			−	+	+	−		

4.2. 중성의 자질 체계

『훈민정음』의 중성체계는, 초성이나 종성의 체계를 세우는 것처럼, 중국 성운학의 운(韻)의 분류 자질을 바탕으로 하여, 그 체계를 세우기는 어렵다. (3)에서 확인한 것처럼, 중성은 운복(韻腹)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앞뒤에 운두(韻頭)와 음성운미(陰聲韻尾)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單位)를 이루기 때문이다. 『훈민정음』 중성해(中聲解)의 중성 목록에는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밖에, 「ㅘ, ㅙ, ㅝ, ㅞ」(同出相合), 「ㆎ, ㅚ, ㅟ, ㅐ, ㅟ, ㅔ, ㅚ, ㅐ, ㅟ, ㅔ」(一字中聲之相合), 「ㅙ, ㅙ, ㅞ, ㅞ」(二字中聲之相合) 따위가 더 있다.[27] 이와 관련하여, 『훈민정음』 중성해에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

27) "二字合用者·ㅗ與ㅏ同出於·故合而爲ㅘ。ㅛ與ㅑ又同出於ㅣ·故合而爲ㅙ。ㅜ與ㅓ同出於

지 않지만,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중성의 유형(類型)이 어떠했는지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는 있다. 곧 중성은 운복(韻腹)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앞에는 운두(韻頭)가 결합하고, 그 뒤에는 음성운미(陰聲韻尾)가 결합하여, 하나의 단위(單位)를 이루게 되는데, 그 결합 유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성은 운복(韻腹, V)만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여기에 운두(韻頭, 「j−, −w, jw(ɥ)−」)와 음성운미(陰聲韻尾, 「−Ø, −j, −w」)가 결합하여 중성을 이룰 수도 있다. 운복(韻腹)에 운두(韻頭)와 음성운미(陰聲韻尾)가 결합하여 중성을 이룰 경우, 다음의 세 가지 유형이 가능하다. 곧 운두(韻頭)와 운복(韻腹)의 결합형, 운복(韻腹)과 음성운미(陰聲韻尾)의 결합형, 운두(韻頭)와 운복(韻腹)과 음성운미(陰聲韻尾)의 결합형이 그것이다. 그런데 운두(韻頭)는, 개모(介母)의 차이에 따라, 「j−」, 「w−」, 「jw(ɥ)−」 따위로 나누어지고, 음성운미(陰聲韻尾)는 「−Ø」, 「−j」, 「−w」 따위로 나누어진다. 그러므로 중성은 다시 운두(韻頭와 운복(韻腹)의 결합형 세 가지, 운복(韻腹)과 음성운미(陰聲韻尾)의 결합형 두 가지, 그리고 운두(韻頭)와 운복(韻腹)과 음성운미(陰聲韻尾)의 결합형 여섯 가지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제 이들 중성의 유형을 제시하면, (16)과 같다.[28]

(16) 중성의 유형(類型)
  가. 운복(韻腹) 형;
    V; 「ㆍ, ㅡ, ㅣ, ㅗ, ㅏ, ㅜ, ㅓ」
  나. 운두(韻頭)+운복(韻腹) 형;
    ㄱ. j+V; 「ㅛ, ㅑ, ㅠ, ㅕ」
    ㄴ. w+V; 「ㅘ, ㅝ」
    ㄷ. jw(ɥ)+V; 「ㅚ, ㅞ」
  다. 운복(韻腹)+음성운미(陰聲韻尾) 형;
    ㄱ. V+j; 「ㆎ, ㅢ, ㅟ, ㅐ, ㅝ, ㅔ」
    ㄴ. V+w; 效攝, 流攝[29]

一ㆍ故合而爲ㅜ。ㅠ與ㅕ又同出於ㅣㆍ故合而爲ㅞ。以其同出而爲類ㆍ故相合而不悖也。一字中聲之與ㅣ相合字十ㆍㆎㅢㅟㅐㅝㅔㅞㅒㅖ是也。二字中聲之與ㅣ相合字四ㆍㅙㅞㅙㅞ是也。”(『訓民正音』 中聲解)

28) 중성의 유형과 관련해서는 임용기(2012ㄱ)을 참고할 것.

라. 운두(韻頭)+운복(韻腹)+음성운미(陰聲韻尾) 형
ㄱ. j+V+j; 「ㅖ, ㅒ, ㅞ, ㅙ」
ㄴ. j+V+w; 效攝, 流攝
ㄷ. w+V+j; 「ㅙ, ㅞ」
ㄹ. w+V+w; 效攝, 流攝
ㅁ. jw(ɥ)+V+j; 「ㅙ, ㅞ」
ㅂ. jw(ɥ)+V+w; 效攝, 流攝

곧 중성의 유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운복(韻腹)만으로 이루어지는 「ㆍ, ㅡ, ㅣ, ㅗ, ㅏ, ㅜ, ㅓ」, 운두(韻頭)와 운복(韻腹)이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ㅛ, ㅑ, ㅠ, ㅕ」, 「ㅘ, ㅝ」, 「ㅚ, ㅞ」, 운복(韻腹)과 음성운미(陰聲韻尾)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ㆍㅣ, ㅢ, ㅚ, ㅐ, ㅟ, ㅔ」, 운두(韻頭)와 운복(韻腹)과 음성운미(陰聲韻尾)가 결합하여 이루어지는 「ㅖ, ㅒ, ㅞ, ㅙ」, 「ㅙ, ㅞ」, 「ㅙ, ㅞ」 따위가 그것이다. 이것은 중성 글자를 만드는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는데, 동출 상합(同出相合)의 「ㅘ, ㅚ, ㅝ, ㅞ」, 일자 중성 상합(一字中聲之相合)의 「ㆍㅣ, ㅢ, ㅚ, ㅐ, ㅟ, ㅔ, ㅖ, ㅒ, ㅞ, ㅙ」, 이자 중성 상합(二字中聲之相合)의 「ㅙ, ㅙ, ㅞ, ㅞ」 등이 바로 그것이다.[30]

이 가운데 음성운미 「-j」를 가진 한자음은 지섭(止攝)과 해섭(蟹攝)에 속하는 것들인데, (16다ㄱ)의 「ㆍㅣ, ㅢ, ㅚ, ㅐ, ㅟ, ㅔ」와 (16라ㄱ)의 「ㅖ, ㅒ, ㅞ, ㅙ」, (16라ㄷ)의 「ㅙ, ㅞ」, (16라ㅁ)의 「ㅙ, ㅞ」 등은 모두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ㅘ, ㅝ」, 「ㅚ, ㅞ」 등에 음성운미 「-j」가 이어난 것들이다. 그리고 「ㅛ, ㅑ, ㅠ, ㅕ」, 「ㅘ, ㅝ」, 「ㅚ, ㅞ」는 운복(V)이 운두의 개모(介母) 「j-」, 「w-」, 「jw(ɥ)-」 따위로 시작하는 소리들이다. 그러므로 음성운미 「-j」와 개모 「j-, w-, jw(ɥ)-」 등을 제외한 운복과만 대응하

29) 效攝과 流攝의 한자음과 그 표기에 대해서는 임용기(2012ㄴ)을 참고할 것.
30) 동출 상합(同出相合) 가운데 「ㅚ, ㅞ」, 일자 중성 상합(一字中聲之相合) 가운데 「ㅖ, ㅒ, ㅞ, ㅙ」, 이자 중성 상합(二字中聲之相合) 가운데 「ㅙ, ㅞ」 등을 위해서는 「ㅛ, ㅑ, ㅠ, ㅕ」가 없어서는 안 된다. 훈민정음 중성 11자 가운데 「ㅛ, ㅑ, ㅠ, ㅕ」가 포함된 데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중성이 홑홀소리(單母音)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그 동안 얼마간 부정적인 논의가 있었지만, 위에서 볼 수 있듯이, 「ㅛ, ㅑ, ㅠ, ㅕ」가 중성 11자 속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적어도 이 문제는 다른 각도에서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세한 논의는 다음 기회로 미룬다.

는 중성은 「ㆍ, ㅡ, ㅣ, ㅗ, ㅏ, ㅜ, ㅓ」 따위의 7 중성뿐이다.

이제 이 7 중성을 어떻게 체계화할 것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러나 이 중성들이 운복(韻腹)과 대응하므로, 운복을 분류하는 기준인 등(等)과 개합(開合)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겉으로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다. 그 대신 설축(舌縮), 설소축(舌小縮), 설불축(舌不縮)과 구축(口蹙), 구장(口張)이란 자질들을 설정하고, 그것에 따라 중성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중성의 제자(制字) 과정에 그대로 반영된다.[31] 그 당시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참고할 수 있었던 유일한 학문은 중국의 성운학뿐이었으므로, 중성을 체계화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기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32]

그런데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의 중성을 분석한 뒤, 그것을 설축(舌縮)·설소축(舌小縮)·설불축(舌不縮)과 구축(口蹙)·구장(口張), 그리고 '기어ㅣ(起於ㅣ)'와 같은 자질을 설정하여, 그 체계를 세웠는데, 설축(舌縮)·설소축(舌小縮)·설불축(舌不縮) 따위는 혀의 오그라짐(縮)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구축(口蹙)과 구장(口張)은 입의 오므라짐(蹙)과 벌어짐(張)을 나타내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등(等) 또는 개합(開合)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따위도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고 있다.

---

31) 『훈민정음』 제자해에서 설정한 초성과 중성의 자질이 구체적으로 훈민정음의 제자 과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임용기(2008, 2010)을 참고할 것.

32) 훈민정음의 중성체계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얼마간의 논의가 있었다.(유창균 1963, 1965ㄱ, 1965ㄴ. 강신항 1964. 정연찬 1977, 임용기 2002 등 참고). 특히 훈민정음 「ㅗ/ㅜ」의 성격 규명이 논의의 핵심을 이루기도 하였다. 이 문제는 중국 성운학의 '개합(開合)'의 개념과 『훈민정음』 제자해의 '합벽(闔闢)'의 개념이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로 귀결되었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문제의 초점은 중국 한자음의 분류 기준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인 등(等)과 개합(開合)에 대한 이해와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이 조선 한자음을 그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곧 『훈민정음』 중성해의 설축(舌縮), 설소축(舌小縮), 설불축(舌不縮)은 등(等)과 관련이 있고, 구축(口蹙)과 구장(口張)은 개합(開合)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아직 그 관계를 분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초성과 종성의 경우와는 아주 대조적이다.

그 동안 이 개념들에 대해서는 15세기의 홀소리 체계[母音體系]와 홀소리 어울림[母音調和] 현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혀의 최고점(最高點, the highist point of the tongue) 설(說)에 기대어, 혀의 앞뒤와 높낮이, 그리고 입술의 모양 등에 대응시키거나, 혀의 최협부(最峽部, isthmus) 설(說)에 기대어, [±RTR]([±ATR]) 따위로 설명하기도 했지만[33],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아무래도 이것은 등(等)과 개합(開合)에 대응시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다. 이제 『동국정운』 23 중성의 중고음(中古音)과 당시의 조선(朝鮮) 한자음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34]

(17) 『동국정운』 23 중성의 중고음과 당시의 조선 한자음

1) 「·」 根ᄀᆞᆫ (廣)古痕切 見痕開一平臻 *ᄀᆞᆫ 〈救急簡易方2:84ㄱ〉 ,*근 〈六祖法寶壇經序:6ㄱ〉
　　簪ᄌᆞᆷ (廣)作含切 精覃開一平咸 *ᄌᆞᆷ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2ㄱ〉
　　貲ᄌᆞ (廣)卽移切 精支開三平止 *ᄌᆞ 〈飜譯小學 7:28ㄱ〉
2) 「ㅡ」 掯ᄀᆞᆼ (廣)古鄧切 見嶝開一平曾 *ᄀᆞᆼ 〈華東正音通釋韻考 2:28ㄱ〉
　　巾근 (廣)古銀切 見眞開三平臻 *건 〈飜譯小學 9:2ㄱ〉
　　金금 (廣)居吟切 見侵開三平深 *금 〈六祖法寶壇經 上:4ㄴ〉
3) 「ㅣ」 蒸징 (廣)煮仍切 章蒸開三平曾 *증 〈光州千字文 37ㄱ〉
　　珍딘 (廣)陟鄰切 知眞開三平臻 *딘 〈六祖法寶壇經 中:48ㄴ〉
　　磌딤 (廣)知林切 知侵開三平深(磌=砧) *팀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6ㄴ〉
　　祇낑 (廣)章移切 章支開三平止(祇;只) *지 〈三韻聲彙 上:20ㄴ, 註解千字文 30ㄱ〉
　　(廣)巨支切 羣支開三平止(祇;地祇) *기 〈三韻聲彙 上:8ㄴ, 註解千字文 30ㄱ〉
4) 「ㅗ」 公공 (廣)古紅切 見東合一平通 *공 〈六祖法寶壇經 序:6ㄱ〉
　　昆곤 (廣)古渾切 見魂合一平臻 *곤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上:16ㄴ〉
　　高곻 (廣)古勞切 見豪開一平效 *고 〈六祖法寶壇經 中:33ㄴ〉
　　孤곳 (廣)古胡切 見模合一平遇 *고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下:14ㄴ〉
5) 「ㅏ」 江강 (廣)古雙切 見江開二平江 *강 〈六祖法寶壇經 上:40ㄴ〉
　　干간 (廣)古寒切 見寒開一平山(干;犯) *간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3ㄴ〉
　　甘감 (廣)古三切 見談開一平咸 *감 〈六祖法寶壇經 序:5ㄱ〉
　　歌갛 (廣)古三切 見歌開一平果 *가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下:7ㄱ〉
6) 「ㅜ」 弓궁 (廣)居戎切 見東合三平通 *궁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4ㄱ〉
　　君군 (廣)擧云切 見文合三平臻 *군 〈六祖法寶壇經 序:5ㄱ〉
　　鳩귷 (廣)居求切 見尤開三平流 *구 〈六祖法寶壇經 下:70ㄴ〉

---

33) ‘설축(舌縮)·설소축(舌小縮)·설불축(舌不縮)’과 ‘구축(口蹙)·구장(口張)’의 해석에 대해서는 이숭녕(1954), 김완진(1963), 김영송(1977) 등을 참고할 것.

34) 『동국정운』 23 중성의 중고음(中古音)은 곽석량(郭錫良, 1986, 2010)과 정성수·이 영(丁聲樹·李榮, 1976)에 따른 것이다.

拘궁 (廣)擧朱切 見虞合三平遇 *구 〈六祖法寶壇經 下:68ㄱ〉
7)「ㄱ」 鞬건 (廣)居言切 見元開三平山 *건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4ㄴ〉
箝껌 (廣)巨淹切 羣鹽開三平咸 *겸 〈三韻聲彙 下:39ㄴ〉
居겅 (廣)九魚切 見魚開三平遇 *거 〈六祖法寶壇經 上:15ㄴ〉
8)「ㅛ」 鍾죵 (廣)職容切 章鍾合三平通 *죵 〈飜譯小學 9:101ㄴ〉
驍굘 (廣)古堯切 見蕭開四平效 *교 〈飜譯小學 6:2ㄴ〉
9)「ㅑ」 張댱 (廣)陟良切 知陽開三平宕(張;張弓, 張大) *댱 〈六祖法寶壇經 序:24ㄱ〉
(廣)知亮切 知漾開三去宕(張;自大, 張=脹) *댱 〈飜譯小學 7:41ㄱ〉
迦걍 (廣)古牙切 見麻開二平假 *가 〈六祖法寶壇經 上:113ㄱ〉
10)「ㅠ」 中듕 (廣)陟弓切 知東合三平通(中;中間) *듕 〈六祖法寶壇經 序:4ㄱ〉
(廣)陟仲切 知送合三去通(中;射中) *즁 〈三韻聲彙 上:2ㄴ, 註解千字文 29ㄴ〉
鈞균 (廣)居匀切 見諄合三平臻 *균 〈光州千字文 39ㄴ〉
樛귷 (廣)居虯切 見尤開四平流 *규 〈御定奎章全韻 下 33ㄴ〉
株듀 (廣)陟輸切 知虞合三平遇 *듀 〈六祖法寶壇經 上:5ㄴ〉
11)「ㅋ」 京경 (廣)擧卿切 見庚開三平梗 *경 〈六祖法寶壇經 上:4ㄴ〉
堅견 (廣)古賢切 見仙開四平山 *견 〈飜譯小學 6:27ㄴ〉
兼겸 (廣)古甜切 見添開四平咸 *겸 〈飜譯小學 9:10ㄴ〉
豬뎡 (廣)陟魚切 知魚開三平遇 *뎌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上:10ㄱ〉
12)「ㅘ」 戈광 (廣)古禾切 見戈合一平果 *과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14ㄱ〉
光광 (廣)古黃切 見唐合一平宕 *광 〈六祖法寶壇經 中:6ㄴ〉
官관 (廣)古丸切 見桓合一平山 *관 〈六祖法寶壇經 上:17ㄴ〉
13)「ㅘ」
14)「ㅝ」 權꿘 廣)巨員切 羣仙合三平山 *권 〈六祖法寶壇經 中:71ㄱ〉
15)「ㅞ」 扃궹 (廣)古螢切 見靑合四平梗 *경 〈飜譯小學 4:11ㄴ〉
涓권 (廣)古玄切 見先合四平山 *견 〈三韻聲彙 上:63ㄱ〉, *연 〈新增類合 下:50ㄱ〉
說·쉃 (廣)失爇切 書薛合三入山 *셜 〈六祖法寶壇經 序:5ㄱ〉
轉:둰 (廣)陟兗切 知獮合三上山 *뎐 〈飜譯小學 9:6ㄱ〉
16)「·ㅣ」 庚깅 (廣)古行切 見庚開二平梗 *경 〈六祖法寶壇經 序:8ㄱ〉
胎팅 (廣)土來切 透咍開一平蟹 *틔 〈三壇施食文 35ㄱ〉
戴딩 (廣)都代切 端代開一去蟹 *듸 〈飜譯小學 10:34ㄱ〉
17)「ㅢ」 羈긩 (廣)居宜切 見支開三平止 *긔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2ㄱ〉
姬긩 (廣)居之切, 見之開三平止 *희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下:14ㄱ〉
18)「ㅚ」 觥굉 (廣)古橫切 見庚合二平梗 *굉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7ㄱ〉
傀굉 (廣)工回切 見灰合一平蟹(傀;大也) *괴 〈御定奎章全韻 上 26ㄴ〉
(廣)口猥切 溪賄合一上蟹(傀;傀儡) *괴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中:2ㄱ〉
19)「ㅐ」 佳갱 (廣)古膎切 見佳開二平蟹 *가 〈光州千字文 40ㄱ〉, *개 〈三韻聲彙 上:40ㄱ〉
皆갱 (廣)古諧切 見皆開二平蟹 *기 〈眞言勸供 51ㄱ〉
20)「ㅟ」 肱귱 (廣)古弘切 見登合一平曾 *굉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上:13ㄴ〉
嬀귱 (廣)居爲切 見支合三平止 *귀 〈小學諺解 4:47ㄴ〉
21)「ㅖ」
22)「ㅒ」

23)「ㅒ」
24)「ㅟ」 規궤 (廣)居隋切 見支合三平止 *규 〈六祖法寶壇經 序:6ㄴ〉
25)「ㅖ」 雞계 (廣)古奚切 見齊開四平蟹 *계 〈訓蒙字會(叡山文庫本) 上:9ㄱ〉
26)「ㅙ」 乖괭 (廣)古懷切 見皆合二平蟹 *괴 〈飜譯小學 9:96ㄴ〉
27)「ㅞ」
28)「ㅖ」
29)「ㅖ」 圭궹 (廣)古攜切 見齊合四平蟹 *규 〈飜譯小學 7:44ㄴ〉

(17)에 따르면, 대개「·」는 개구(開口) 1등(等),「ㅡ」와「ㅣ」는 개구(開口) 3등(等),「ㅗ」는 합구(合口) 1등(等),「ㅏ」는 개구(開口) 1등(等),「ㅜ」는 합구(合口) 3등(等), ㅓ는 개구(開口) 3등(等),「ㅛ」는 합구(合口) 3등(等),「ㅑ」는 개구(開口) 3등(等),「ㅠ」는 합구(合口) 3등(等),「ㅕ」는 개구(開口) 3등(等)과 4등(等)에 속한다. 이것에 따르면, [舌縮]의 중성은 1등(等), [舌小縮]과 [舌不縮]의 중성은 3등(等)이고, 구축(口蹙)의 중성은 합구(合口)이고, 구장(口張)의 중성은 개구(開口)이다. [起於ㅣ]의 중성은 3등(等) 또는 4등(等)이다. 이것은『훈민정음』제자해의 제자 과정과도 잘 맞는다. 곧「·」는 [舌縮]인데, 여기에서「ㅗ」([舌縮・口蹙])와「ㅏ」([舌縮・口張])가 나오고,「ㅡ」는 [舌小縮]인데, 여기에서「ㅜ」([舌小縮・口蹙])와「ㅓ」([舌小縮・口張])가 나온다. 그리고「ㅗ, ㅏ, ㅜ, ㅓ」에서「ㅛ, ㅑ, ㅠ, ㅕ」가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 [起於ㅣ]의 자질을 갖는 것들이다. 모두 [合口 3等]이거나 [開口 3等 또는 4等]이다.[35] 따라서『훈민정음』제자해의 설축(舌縮)・설소축(舌小縮)・설불축(舌不縮)의 자질과 구축(口蹙)・구장(口張)의 자질은 등(等)과 개합(開合)에 바탕을 두고 설정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제『훈민정음』제자해에 근거하여, 중성의 자질을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35) "中聲凡十一字。舌縮而聲深·天開於子也。形之圓·象乎天也。一舌小縮而聲不深不淺·地闢於丑也。形之平·象乎地也。ㅣ舌不縮而聲淺·人生於寅也。形之立·象乎人也。此下八聲·一闔一闢。ㅗ與同而口蹙·其形則與一合而成·取天地初交之義也。ㅏ與同而口張·其形則ㅣ與合而成·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ㅜ與一同而口蹙·其形則一與合而成·亦取天地初交之義也。ㅓ與一同而口張·其形則與ㅣ合而成·亦取天地之用發於事物待人而成也。ㅛ與ㅗ同而起於ㅣ。ㅑ與ㅏ同而起於ㅣ。ㅠ與ㅜ同而起於ㅣ。ㅕ與ㅓ同而起於ㅣ。"(『訓民正音』制字解)

(18) 중성의 자질

「ㆍ」:[舌縮]
「ㅗ」:[舌縮, 口蹙]
「ㅏ」:[舌縮, 口張]
「ㅛ」:[舌縮, 口蹙, 起於ㅣ]
「ㅑ」:[舌縮, 口張, 起於ㅣ]
「ㅡ」:[舌小縮]
「ㅜ」:[舌小縮, 口蹙]
「ㅓ」:[舌小縮, 口張]
「ㅠ」:[舌小縮, 口蹙, 起於ㅣ]
「ㅕ」:[舌小縮, 口張, 起於ㅣ]
「ㅣ」:[舌不縮]

(18)을 바탕으로 하여, 중성의 자질 체계를 양분자질(binary feature)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19) 중성의 자질 체계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ㅛ	ㅑ	ㅠ	ㅕ
舌縮	+	−	−	+	+	−	−	+	+	−	−
舌展[36]	−	−	+	−	−	−	−	−	−	−	−
口蹙	−	−	−	+	−	+	−	+	−	+	−
口張	−	−	−	−	+	−	+	−	+	−	+
起於ㅣ	−	−	−	−	−	−	−	+	+	+	+

그리고 『훈민정음』 중성해에 따르면, 중성(中聲)은 모두 29자(字)[37]인데, 이것을 『훈민정음』 중성해의 배열 순서에 따라 벌이면, 다음과 같다.

---

36) '설전(舌展)'이란 말은 '설불축(舌不縮)'과 같은 것인데, 『훈민정음』 중성해에서 가져온 것이다.
"ㅣ於深淺闔闢之聲·並能相隨者·以其舌展聲淺而便於開口也。亦可見人之參贊開物而無所不通也。"(『訓民正音』 中聲解)

37) 이 가운데 『석보상절』 에서는 ᅶ,ᅷ,ᅻ, *ᅑ」 (4자)가, 『동국정운』 에서는 「*ᅷ,*ᅱ,*ᅬ,*ᅣ,*ᅫ,*ᅦ,」 (6자)가, 『홍무정운역훈』 에서는 「*, ᆞᆞ, ᅩᆞ, ᅮᆞ, ᅣ, ᅶ, ᅷ, ᅻ, ᅺ」 (11자)가 쓰이지 않는다.(임용기 1997ㄱ 참고)

(20) 『훈민정음』 중성해의 29 중성 배열

ㄱ. 「ㆍ, ㅡ, ㅣ」(3)

ㄴ. 「ㅗ, ㅏ, ㅜ, ㅓ」(4)

ㄷ. 「ㅛ, ㅑ, ㅠ, ㅕ」(4)

ㄹ. 「ㅘ, ㅙ, ㅝ, ㅞ」 (4)

ㅁ. 「ㆎ, ㅚ, ㅟ, ㅢ, ㅟ, ㅖ, ㅒ, ㅖ, ㅒ, ㅖ」(10)

ㅂ. 「ㅙ, ㅙ, ㅞ, ㅞ」(4)

그런데 『훈민정음』 제자해에서는 (20ㄱ)의 「ㆍ, ㅡ, ㅣ」와 (20ㄴ)의 「ㅗ, ㅏ, ㅜ, ㅓ」의 분석 근거를 '등(等)'과 '개합(開合)'에 두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국정운』 23 중성의 중고음(中古音)과 그 당시의 조선 한자음을 확인하였던 것이다.((17) 참고) 그리고 (20ㄷ)의 「ㅛ, ㅑ, ㅠ, ㅕ」는 개모(介母) [j-]에서 비롯하는 소리이고, (20ㄷ)의 「ㅘ, ㅝ」는 개모(介母) [w-]에서 비롯하는 소리이며, 또 (20ㄷ) 「ㅙ, ㅞ」는 개모(介母) [jw(ɥ)-])에서 비롯하는 소리인데, 이 소리들은 청 대(淸代) 성운학의 '사호(四呼)'에 대응된다. 이것들을 사호(四呼)에 대응시키면, 「ㅛ, ㅑ, ㅠ, ㅕ」는 '재치호(齊齒呼)'에, 「ㅘ, ㅝ」는 '합구호(合口呼)'에, 「ㅙ, ㅞ」는 '촬구호(撮口呼)'에 각각 대응한다. 그리고 「ㆍ, ㅡ, ㅣ」와 「ㅗ, ㅏ, ㅜ, ㅓ」는 대체로 '개구호(開口呼)'에 대응하는데, 「ㅗ, ㅜ」는 그렇지 않다. 사호(四呼)에 따라, (20)를 체계화하면, (21)과 같다.

(21) 중성 29자와 사호(四呼)

開口呼	ㆍ	ㅡ	ㅣ	*ㅗ	ㅏ	*ㅜ	ㅓ	ㆎ	ㅚ	*ㅟ	ㅐ	*ㅔ	ㅖ
齊齒呼					ㅑ	ㅠ	ㅕ			ㅒ	ㅒ	ㅖ	ㅖ
合口呼					ㅘ		ㅝ				ㅙ		ㅞ
撮口呼					ㅙ		ㅞ				ㅙ		ㅞ

4.3. 종성의 자질 체계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종성이 성운학의 양성운미에 대응하고 또 양성운미에는 입성운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것들의 음성학적 특징 및 그 차이는 일찍부터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다. 곧 양성운미를 갖는 「卽, 洪, 彆, 君, 業, 覃」 자(字)의 종성은 「ㄱ(k)·ㆁ(ŋ), ㄷ(t)·ㄴ(n), ㅂ(p)·ㅁ(m)」 등인데, 이것들은 각각 완급(緩急)으로 대립된다고 한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6종성에다 우리말에만 있는 종성 「ㅅ(s)」 과 「ㄹ(l)」 을 더하면 8종성이 되는데,[3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이 8종성을 완급(緩急)에 따라 느린[緩] 소리(ㆁ, ㄴ, ㅁ, ㄹ)와 빨리 끝닫는[急] 소리(ㄱ, ㄷ, ㅂ, ㅅ)로 나누었다. 그리고 느린 소리는 모두 불청불탁(不淸不濁)에 속하는 소리들인데, 이것들은 평성, 상성, 거성의 종성이 되고, 빨리 끝닫는 소리는 전청(全淸), 차청(次淸), 전탁(全濁) 등에 속하는 소리들인데, 이것들은 입성의 종성이 된다고 하였다. 또 완급의 관계는 느린 소리를 촉급(促急)하게 내면, 변해서 빨리 끝 닫는 소리가 되고(ㆁ→ㄱ), 역(逆)으로 빨리 끝 닫는 소리를 느리게 내면, 변해서 느린 소리가 되는 것(ㄱ→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이처럼 종성은 완급으로 대립되는데, 「ㆁ:ㄱ, ㄴ:ㄷ, ㅁ:ㅂ, ㅿ:ㅅ, ㅇ:ㆆ」 따위가 그것이다. 그런데 「彆」 자는 본래 입성인데, 우리 한자음으로는 「별」 이라 읽으니, 입성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 그 까닭은 「ㄷ」 이 변해서 가벼워진 때문이라고 하였다.[39] 따라서 『동국정운』 에서는 이 글자의 음(音)을 「·볋」 이라고 적었는데, 느린 소리인 「ㄹ」 만으

---

38) 「ㄱ·ㆁ, ㄷ·ㄴ, ㅂ·ㅁ, ㅅ, ㄹ」 등을 8종성이라고 하는데, 그 까닭은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말의 종성을 다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팔종성가족용(八終聲可足用)'은 여기에 따른 것이다.(주17 참고)

39) "聲有緩急之殊·故平上去其終聲不類入聲之促急。不淸不濁之字·其聲不厲·故用於終則宜於平上去。全淸次淸全濁之字·其聲爲厲·故用於終則宜於入。所以ㆁㄴㅁㅇㄹㅿ六字爲平上去聲之終·而餘皆爲入聲之終也。然ㄱㆁㄷㄴㅂㅁㅅㄹ八字可足用也。如빗곶爲梨花·엿의갗爲狐皮·而ㅅ字可以通用·故只用ㅅ字。且ㅇ聲淡而虛·不必用於終·而中聲可得成音也。ㄷ如볃爲彆·ㄴ如군爲君·ㅂ如업爲業·ㅁ如땀爲覃·ㅅ如諺語·옷爲衣·ㄹ如諺語:실爲絲之類。五音之緩急·亦各自爲對。如牙之ㆁ與ㄱ爲對·而ㆁ促呼則變爲ㄱ而急·ㄱ舒出則變爲ㆁ而緩。舌之ㄴㄷ·脣之ㅁㅂ·齒之ㅿㅅ·喉之ㅇㆆ·其緩急相對·亦猶是也。且半舌之ㄹ·當用於諺·而不可用於文。如入聲之彆字·終聲當用ㄷ·而俗習讀爲ㄹ·盖ㄷ變而爲輕也。若用ㄹ爲彆之終·則其聲舒緩·不爲入也。"(『訓民正音』 終聲解)

로는 입성이 되지 않으므로, 빠른 소리인 「ㆆ」 을 보태어 입성으로 만든 것이다. 이것을 '이영보래(以影補來)'라고 한다. 영모(影母, ㆆ)로써 래모(來母, ㄹ)를 도와 입성을 만든다는 뜻이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훈민정음』 종성해의 종성의 자질 체계를 양분 자질(binary feature)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22) 종성의 자질 체계

	ㆁ	ㄱ	ㄴ	ㄷ	ㅁ	ㅂ	ㄹ	ㅅ
緩	+	−	+	−	+	−	+	−
急	−	+	−	+	−	+	−	+

5. 맺음말

우리는 이제까지 『훈민정음』 해례본에 나타나 있는,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우리말 음절 짜임새와 초성, 중성, 종성의 음절 안에서의 기능의 차이, 그리고 초성과 종성의 음운론적 동질성 등에 관한 이해 등을 바탕으로 하여, 초성, 중성, 종성 및 사성(四聲)의 분석 방법과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 체계를 살펴보았다. 이것을 통하여,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은 우리말과 우리 한자음을 우선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 체계는, 중국 성운학의 분류 체계를 따르면서도, 훈민정음의 제자(制字)를 위하여, 그에 맞게 새롭게 마련한 것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것들은 당시의 유일한 음운 이론이었던 중국말을 바탕으로 한 중국의 성운학(聲韻學)만으로는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우리말의 음절 짜임새를 새롭게 분석하고, 나아가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 체계를 세우기 위하여, 새로운 음운 이론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는데, 이것이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이다. 그렇지만 중국의 성운학에서 아주 벗어날 수는 없었다. 그와 같은

사실은 중국말 음절 짜임새와 우리말 음절 짜임새의 대응, 초성, 중성, 종성의 분석 방법 및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음운자질의 설정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곧 초성의 오음(五音)과 청탁(淸濁), 종성의 오음(五音)과 완급(緩急), 중성의 등(等)과 개합(開合) 등의 개념을 원용(援用)한 것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훈민정음의 제자(制字)를 위하여, 오음(五音), 청탁(淸濁), 완급(緩急), 등(等), 개합(開合) 등의 개념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그것들을 우리말의 특징에 맞게 바꾸었는데, 초성의 여(厲), 응(凝), 심천(深淺), 경중(輕重), 중성의 설축(舌縮), 설소축(舌小縮), 설불축(舌不縮), 구축(口蹙), 구장(口張), 기어ㅣ(起於ㅣ), 등의 자질이 그것이다. 이것은 훈민정음 제자(制字) 과정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그러므로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절 짜임새의 분석과 초성, 중성, 종성의 자질 설정 등은 훈민정음의 제자(制字)를 위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이 음절 중심의 음운 이론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강신항(1964), “15세기 국어의 「ㅗ」에 대하여”, 『도남 조윤제 박사 회갑 기념 논문집』, 도남 조윤제 박사 회갑 기념 사업회.

강창석(1992), “15세기 음운 이론의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권재선(1987), 『국어학 발전사』(고전국어학 편), 한국고시사.

김영송(1977), “훈민정음의 舌縮 자질”, 『언어학』 2, 한국언어학회.

김완진(1963), “국어 모음 체계의 신고찰”, 『진단학보』 23, 진단학회.

유창균(1979), 『동국정운』, 형설출판사.

유창균(1984), 『국어학논고』, 계명대학교 출판부.

이기문(1993), 『국어 표기법의 역사적 연구』, 한국연구원.

이병근(1988), “훈민정음의 초·종성 체계”, 『훈민정음의 이해』, 한신문화사.

이숭녕(1954), 『국어음운론연구』 -제1집 「·」 음고-, 을유문화사.

정연찬(1977), “개합과 벽합에 대하여”, 『김형규 박사 송수 기념 논문집』, 일조각.

최영애(2000), 『中國語音韻學』, 통나무.
허 웅(1985), 『국어음운학』 -우리말 소리의 오늘·어제-, 샘문화사.
홍기문(1946), 『정음발달사』(상·하), 서울신문사.
照那斯圖·楊耐思 編著(1987), 『蒙古字韻校本』, 北京: 民族出版社.
임용기(1992), "『훈민정음』에 나타난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하여", 『세종학연구』 7, 세종대왕기념사업회.
임용기(1996), "삼분법의 형성 배경과 훈민정음의 성격", 『한글』 233, 한글학회.
임용기(1997ㄱ), "삼분법과 훈민정음의 체계", 『국어사연구』, 태학사.
임용기(1997ㄴ), "삼분법과 훈민정음 체계의 이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24회 국어학회공동연구회 발표 요지.
임용기(2002), "삼분법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와 중성 체계 분석의 근거에 관한 몇 가지 문제", 『애산학보』 27, 애산학회.("삼분법과 훈민정음 체계의 이해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제24회 국어학회 공동연구회 발표요지, 1997.12.12.)
임용기(2003), "이른바 이체자 「ㆁ,ㄹ,ㅿ」의 제자 방법에 대한 반성", 『한국의 문자와 문자 연구』, 집문당.
임용기(2006), "훈민정음의 구조와 기능의 과학성", 『국어학논총』, 태학사.
임용기(2008), "세종 및 집현전 학자들의 음운 이론과 훈민정음", 『한국어학』 41, 한국어학회.(『제2회 한국어학회 국제학술회의- '한글'-』(발표요지), 한국어학회, 고려대학교 인촌기념관 대강당 등, 2008.8.16-8.18. / 『훈민정음과 파스파문자 국제학술 Workshop』(발표요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대강당 2층 세미나실, 2008.11.18.-11.19.)
임용기(2010), "초성·중성·종성의 자질과 훈민정음", 『국어학』 57, 국어학회.("음운자질과 훈민정음", 국어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국제학술대회: 『국어학회 50년, 「國語學」 50년』(발표요지), 국어학회, 서강대학교 다산관 101호 국제회의실, 2009.12.17.-12.19.)
임용기(2012ㄱ), "文字體系와 表記法"-訓民正音의 漢字音 表記와 關聯하여-, 『韓國學報』 第23期, 臺灣(臺北):中華民國 韓國研究學會.(『第二十屆 中·漢 文化關係 國際學術會議 論文集』(發表要旨), 中華民國 韓國研究學會, 國立臺灣政治大學. 2011.12.17.)
임용기(2012ㄴ), "훈민정음의 한자음 표기와 관련한 몇 가지 문제", 『人文科學』 제96집,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동아시아의 구전 전통과 문자 문화』(발표요지), 제2회 인문학연구원 HK문자연구사업단 국제학술회의,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5.27.)
권인한(2009) 『中世韓國漢字音訓集成』(개정판), 도서출판 제이앤씨.
남광우(1995), 『古今漢韓字典』, 인하대학교 출판부.

홍윤표(2000), 『漢字字釋辭典』, 태학사.
丁聲樹 編錄・李 榮 參訂(1976), 『古今字音對照手冊』, 香港:太平書局
郭錫良(1986), 『漢字古音手冊』, 北京:北京大學出版社.
郭錫良(2010), 『漢字古音手冊』(增訂本), 北京:商務印書館.

『訓民正音』(解例本)
『訓民正音』(諺解本)
『東國正韻』
『洪武正韻譯訓』
『華東正音通釋韻考』
『三韻聲彙』
『御定奎章全韻』
『全韻玉篇』
『性理大全』
『龍飛御天歌』
『釋譜詳節』
『月印千江之曲』

『六祖法寶壇經諺解』